

골리앗을 이긴 다윗

■ 사무엘상 17장 45~49절

■ 28(통28), 540(통219)

■ 2017년 6월 4일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다윗의 믿음을 닮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향해 ‘찢어 죽인 다음에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고 저주했습니다(43~44절).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여호와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45~47절). 미리 준비한 물매에 매끈한 돌을 담아 돌려서 골리앗에게 던지자 이마에 돌이 박혀서 쓰러지게 됩니다(48~49절).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베고 환호를 지를 때 블레셋은 패배한 채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45~49절).

다윗은 **첫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찾아오면 그들과 싸워서 무찌르고 끝까지 양을 지켰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항상 스스로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대항하러 나아갈 때도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40절). 그가 물매에 돌을 던지는 것도 양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오랫동안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사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준비되고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충성할 때에 우리 믿음이 점점 만들어지고 자라난 이후에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온다고 하더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야겠다고 했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이 그를 막아서서 책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혈기를 부리지 않고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명의 길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소한 일로 낙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 달음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겐 사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지를 때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에 다윗은 물러나지 않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제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하는 성도를 인도해주시고 주장해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은 참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손해를 보는 것은 참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때 다윗은 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이 책망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했지만 혼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쓰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이 공격해올 때에 사자와 곰을 보지 않고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싸우고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쳐다보고 두려워 뿔뿔 떨어졌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었고, 그의 갑옷의 무게만 60kg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겉모습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자신과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그는 힘을 얻었고, 골리앗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천사에게 누구의 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나는 여호와와 군대장관이다. 네가 여호와와 편이 되면 내가 너를 돕고 네가 여호와와 편에서 떠나면 너를 대적하여 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마다 고난을 보고 낙심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보다 강하시고, 태산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넓고 깊으시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사명에 충성해서 준비되고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찾고, 사소한 것에 시험 들지 말고, 사명을 위해 달음질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 공과 내용

1.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저주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2.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에 충성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3. 다윗이 골리앗을 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설명해 보세요.